



보 도 자 료

책임자 정성희 실장(산업연구실, 3775-9024)
작성자 김규동 연구위원(산업연구실, 3775-9049)
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보도 2022. 9. 6(화) 15:30
배포 2022. 9. 6(화)
매수 총 3매

보험연구원, 「신용생명보험 현황 및 과제」 포럼 개최

“「빛의 대물림」 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신용생명보험 활성화가 필요”

- 보험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가계부채 이슈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, 가계의 대출미상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신용생명보험의 기능, 관련 규제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9월 6일(화) 오후 3시 『신용생명보험 현황 및 과제』를 주제로 제35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을 개최함
- (주제발표)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‘신용생명보험 현황 및 과제’라는 주제로, 신용생명보험 가입을 통해 가계는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“빛의 대물림”을 방지하고, 은행은 대출금 회수에 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으며, 보험회사는 신규시장을 확대하고,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와 소비자 금융 안정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발표함

신용생명보험의 효과

소비자	대출기관(은행)	보험회사	금융당국
채무불이행으로 인한 “빛 대물림” 방지	대출금 회수에 대한 비용 및 불확실성 감소	신규시장 확대	가계대출 관리, 소비자 금융 안정 유지

- 신용생명보험은 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”(보험업감독규정 제4-13조 제1항)으로, 활성화를 위하여 선결되어야 하는

문제로는 ① 판매규제, ② 은행의 소극적 대응, ③ 소비자 보호, ④ 상품 개선 등이 있음

- **(판매규제)** 신용생명보험은 대출고객의 사망으로 인한 대출 미상환 위험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, 금융기관에서 대출과 연계하여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할 경우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금지하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,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
 - 이 외에도 규제 위반 논란이 될 수 있어 명확한 해석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, 은행이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보험료가 대출금리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경우, 이 역시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,
 - 대출고객이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은행은 신용위험이 감소하는데, 이에 대한 보상으로 고객에게 대출금리 인하나 대출한도 확대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경우,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“특별이익제공”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
- **(은행의 소극적 대응)** 은행은 신용생명보험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는데, 은행 입장에서 신용생명보험 판매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, 대출 고객이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은행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의가 필요함
 - 신용생명보험은 보험료가 소액이기 때문에 은행이 수취할 수 있는 모집수수료는 적은 반면, 판매에 따른 민원 발생 및 규제 위반에 대한 우려가 높아 은행은 신용생명보험 판매에 소극적임
 - 또한, 신용생명보험 가입으로 인한 은행의 대출회수 비용 절감 효과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
- **(소비자 보호)**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것만으로도, 고객은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고,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의 논란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이 필요함
 - 소비자는 보험가입을 대출 조건으로 오해하거나,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부담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
- **(상품 개선)** 신용생명보험은 대출과 연계하여 판매되는 상품으로, 정기보험 등 다

른 생명보험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

- 대출과 연계한 신속한 가입을 위해 가입절차를 단순화하고 가입기준을 완화할 경우 역선택 문제가 심해질 수 있으며, 가입심사를 엄격히 할 경우 가입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, 소비자 편의를 해치지 않으면서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
- 사망 및 특정 질병 진단에 한정된 보장은 소비자에게 충분한 안전망을 제공하기 어렵고 정기보험에 비해 차별성이 없으므로, 대출 상환 스케줄에 적합한 보장금액 설정*과 보장 범위 확대 등의 상품 개선 노력이 필요함

* 예) 대출금액이 1억원이고 원리금 월 상환액이 1백만원 경우, 15일 이상 입원을 동반한 수술을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상해를 입었을 때에, 입원 기간 및 질병·상해+의 정도에 따라 원리금 월 상환액을 한달 또는 두달간 대신 상환해주는 보장 형태 등

- 김규동 연구위원은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, 은행, 금융당국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, 이를 기반으로 규제 개선과 소비자 보호 방안이 수립되고, 상품 개선이 이루어져야 신용생명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망함

[프로그램]

구 분	일 정
[주제발표] 15:00~15:15 (15분)	■ 주 제: 「신용생명보험 현황 및 과제」 - 김규동 연구위원 (보험연구원) -
[토론] 15:15~16:30 (75분)	■ 사 회: 이경희 교수 (상명대학교) ■ 토 론: 김재영 변호사 (법무법인 태평양) - 서영학 팀장 (하나은행) - 이항석 교수 (성균관대학교) - 임정필 부장 (KB생명) - 조기상 상무 (메트라이프생명) - Robin Pendrigh(로빈 펄드리그) 전무 (BNP파리바 카디프생명) (가나다 순)

-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(<http://www.kiri.or.kr>)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